

출가절 특집

출가는 팔정도 실천 해탈의 출발점

2월 29일은 출가절이다.

부처님이 사문유관 등을 통해 출가를 발심하고 실행에 옮긴 날로, 이 날은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아와 의지를 표출한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이다.

독일 초기 불자로서 '바바리아 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판사'였던 게오르그 그림(1868~1945)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성과 명상의 종교>에서 발췌 한국어로 번역 소개한 <출가의 길>(고요한소리 편)을 간추려 게재한다.

출가의 길

게오르그 그림(독일)

"다가여, 이들 좋은 가문의 세 젊은이가 집을 떠나 출가생활을 서원했다. 만일 그 가족들이 이들 출가자들을 신심이 충만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가족들의 안녕과 행복에 길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부> 31경에서 자신을 추종해 출가를 결행한 세 젊은이들을 놓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를 지체시키는 외부적 환경이 아주 없을 수 없겠지만 출가의 주된 장애가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출가자 본인이 출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뜻이 이미 모든 면에서 고상해서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무엇 하나 그를 더 이상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게끔 되

어 있고, 이에 다시 구경의 세계가 그에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비취지자마자 곧 그를 강력히 사로잡아 이 속세의 소유물들이 모두 공허하고 무미건조하게 보여서 그를 더 이상 단단히 붙잡아 매는 족쇄가 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부> 66경에 다음의 일화가 나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돈과 금은보화와 곡식과 논밭을 소유했다. 아름다운 부인과 여러 명이 있고 하인과 하녀도 많았다. 그는 자주 숲속에 가곤 했다. 그곳에서 손발도 씻고 공양을 마친 뒤 시원한 그늘에 앉아 평화로운 얼굴로 선정에 든 한 스님을 보았다.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한 것일까! 아, 나도 머리카락과 수업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치고, 출가수행을 하고 싶다' 그는 많은 금은보화의 곡식, 논밭, 목초지, 집, 농장, 그리고 하인과 하녀, 여러 명의 부인을 뒤에 두고 떠나 머리카락과 수업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치고, 출가수행을 시작했다. 그 많은 재물과 여러 명의 부인도 그에게는 튼튼한 족쇄가 아니라 약한 족쇄, 무른 족쇄, 힘없는 족쇄였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경지에 이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에 악착같이 집착하며, 속세를 떠나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기껏 해야 잠깐 스쳐갈 뿐이다.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재의 자기 처지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은 단지 희미하게 느낄 뿐이다. 출가하려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건은 계속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우다이여, 가령 여기에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는 까마귀가 드나드는

낡고 불품없는 오두막이 한 채, 낡고 불품없는 침대가 하나, 불품없는 곡식이 한 말, 그리고 불품없는 한 아내가 있을 뿐이라고 하자. 그런 그가 동산에서 손발을 씻고 공양을 마친 뒤 시원한 그늘에 앉아 평화로운 얼굴로 선정에 든 한 스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아! 사문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한 것일까! 아, 나도 머리카락과 수업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

세속의 질긴 족쇄 풀어야만

행복·평화 찾아 출가 수행

승단은 수행장에 제거 하는 제도

재가자가 더 향상할 수도 있어

고, 출가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나 그는 출가수행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보잘 것 없는 소유물이 그에게 튼튼한 족쇄, 단단한 족쇄, 질긴 족쇄였으며, 무른 족쇄가 아닌 고약한 족쇄였다."(<중부> 66경)

이로 비추어 볼 때 아래의 승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일 뿐이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진리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셨다.

이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심오하고, 은밀하고, 미묘하고, 비밀스럽고, 추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중부> 26경)

그러나 극소수이나마 고상한 사람들이 있으며 '저들마저 법을 듣지 못하면 길을

못 찾게 될 것'을 생각하여 승가를 세울 결심을 하시게 된 것이다.

출가교단은 다른 것이 아니다.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세속의 외적인 장애들을 미리 제거하는 제도일 뿐이다.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세속에서 그 장애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그 뿐만 아니라 그 장애들을 억제하게 되면 될수록 성공적 향상을 여기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세속생활을 계속 하면서 오히려 출가자보다 더 멀리까지 향상을 성취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라면 출가하는 쪽이 집에 머물러 있는 쪽보다 훨씬 용이하고 신속하게 향상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사와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출가분한 상태라야 오로지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세속의 의무가 향상을 도움이 될 정도로 편안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이번 생애에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는 없으며, 해탈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도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해탈이라는 궁극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 출가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들 출가자라는 선택된 사람들을 향해 일차적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 이로 미루어 부처님이 출가를 팔정도 실현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팔정도 전 항목을 출가에 기초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선제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팔정도 중 몇몇 단계를 각기 상황에 따라 가능하도록 뒤통을 하셨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요컨대, 부처님께서 출가 해탈의 길을 실천하는 첫 걸음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다.

社說

학교폭력 근절 불교계가 나서자

배움의 터전으로 푸른 꿈이 자라날 학교가 어린 영혼들의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이 된지 오래이다. 연일 마스크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보도되고, 피어보지도 못한 청춘들은 자의반 타의반 하나 둘 꺾이고 있다. 살아남은 청춘들도 푸르러야 할 가슴마다 시커먼 멍 하나씩은 갖고 사는 것이 요즘이다. 중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불교계가 가만있어서는 안된다.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예방을 맞아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7대종교지도자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문

제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미래복지포럼은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에 명상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불교계와 교육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교적 이념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없다는 점도 학교폭력의 해답이 불교에 있음은 확실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각 사찰 혹은 거점사찰에서 청소년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찰이 담당할 수 없는 지역은 법사를 파견해야 한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진도선언을 되뇌이고 실천할 때이다.

승보공양운동 확산을

조계종이 2월 29일 출가절을 시작으로 열반절까지 1주일을 참회발원 정진주간으로 선포했다. 매년 출가절~열반절 기간 용맹정진을 통해 부처님이 오신 뜻을 되새기고 있지만 올해는 승보공양운동이 눈길을 끈다.

승보공양운동은 재가자에게 출가자의 수행·전법 외호의 본분을 다하게끔 하는 운동으로 승려노후복지에도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계종은 승보공양 후원의 밤 개최를 비롯해 승보공양 기금모금 동참, 노스님 간병하기 등을 캠페인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대중의 동참을 위해 승보공양의 의미·공덕 등을 설명하는 소책자까지 만들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구 및 사찰별로 승보공양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

직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부대중이 승보공양 운동에 동참한다면 종단은 재정 부담을 덜고, 재가자는 보람있는 신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흥천 자명사에서는 단 일상찰로는 최초로 비구니 노후수행관을 무보시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자명사 주지 지명 스님은 "노스님 봉양은 불교계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업(共業)이다. 내가 먼저 나서 그 짐을 진다는 심정으로 노비구니스님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의 남보다 한발 앞선 보현행의 뒤를 잇는 발걸음들이 그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재가자의 승보공양에 대해 응공(應供)할 수 있는 수행풍토가 승단에 우선 자리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사부대중 칼럼

스님 왜 출가하셨습니까?



문종 스님
美佛광선원 총무국장

음력 2월 8일(2월 29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성문을 벗어나 출가한 날입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저도 출가한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매일 여러 번 되뇌

니다.

어린시절 저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찰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일찍이 절에서 살게 됐고, 출가를 했습니다. 은사스님은 제게 "부처님 은혜를 받으면 꼭 회향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당시 어린 저는, 은사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절집에 들어오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

습니다. "스님은 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출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지는 저는 어디 글귀를 읽고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서 그것을 자주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상해서 출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무상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묻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물론 이도 이 말 끝에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

다. 간은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말뜻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었던 것처럼, 제 자신이 많이 부족 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하고 대중생활을 하고 또 홀로 만행을 하고 멀리 타국에서 나와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꼭 한 가지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의 마음가짐, 초발심일 것입니다. 저의 처음 그 다짐은 여지없이 따라다녀서 오늘 이렇게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연불닷컴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풍을 연불닷컴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령 및 그 실행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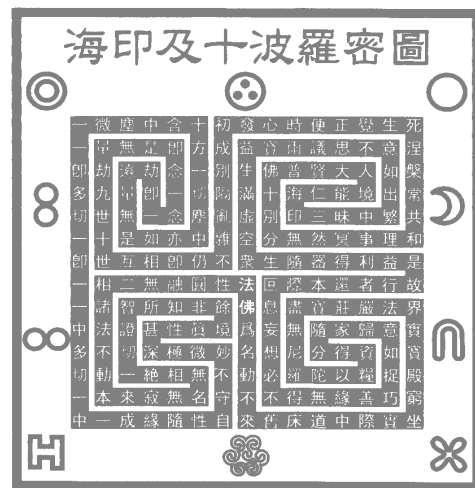
- 사찰명 : 관음사 • 법 명 : 거해(오재호)
• 주 소 : 부산 북구 만덕2동 859-13번지
• 사찰명 : 대경사 • 법 명 : 일월(이경호)
• 주 소 : 부산 사하구 하단1동 610-21번지
• 사찰명 : 미륵사 • 법 명 : 월영(홍매자)
• 주 소 : 울산 남구 무거1동 1251-3번지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義湘大師法性偈十波羅密圖
의상대사십바라밀도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消滅一切障礙 神鬼一切不侵
일체마장이 소멸하며 일체잡귀가 침범 못한다.

특허등록 (30-0607637)

우주심리만사 진리와 부처님 대승법이 모두가 법성도에 있습니다
수공한지에 회화나무 열매로 염색한 괴황지에 특수 제작임.
옛날부터 불경을 사경할 때 회화나무 열매로 염색
특이 염염한 부직 사경시 중이는 꼭 괴황지에 경만주서로만 사용
어떠한 부직보다 천만배 수승한 염염과 공덕이 있다.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작용 괴황지 판매합니다.

大方廣佛華嚴經 법성도십바라밀도 지극한 기도정성으로 제작
법 성 원 전 화 : 1688-7671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 : 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